

- 주요 뉴스: 미 인플레이션 논란, 얼마나 빨리, 많이 후퇴할 것인가로 관심 이동
 - 뉴욕 연은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비 하락. 유가 하락 등이 원인
 -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
 - IFO, 독일에게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브렉시트보다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JP모건, Cit 등 금리인상 전망 강화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드스 하향으로 기술주 중심 약세
 유로 Stoxx600 지수는 소매업관련주 강세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7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강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로 2년물과의 역전폭이 22년래 최대 기록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99.5원, -6.9원) 0.5% 하락, 한국 CDS 하락

		8/8일	8/5일	전주말대비			8/8일	8/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140.1	4,145.2	-0.12%	국채 금리 10y	미국	2.76%	2.83%	-7bp
	유럽	438.93	435.72	0.74%		독일	0.90%	0.96%	-6bp
	중국	3,236.9	3,227.0	0.31%	CDS 5y	한국	39bp	40bp	-1bp
	일본	28,249	28,176	0.26%		중국	78bp	79bp	-1bp
	한국	2,493.1	2,490.8	0.09%	위험 지표	EMBI+	-	424	-
환율	달러지수	106.38	106.62	-0.23%		VIX	21.29	21.15	0.66%
	유로화	1.0197	1.0183	0.14%	WTI유		90.76	89.01	1.97%
	엔화	134.95	135.01	0.04%		구리	358.7	355.2	0.97%
	위안화	6.7512	6.7619	0.16%	금		1,789.0	1,775.5	0.76%
	원화	1,306.4	1,298.3	-0.6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인플레이션 논란, 얼마나 빨리, 많이 후퇴할 것인가로 관심 이동

-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들이 제기
-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중고차, 신차 등 몇가지 분야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잘 변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등으로 확산되는 점에 주목
- Dreyfus and Mellon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직적(sticky) 물가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연말 미 실업률은 6%까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로 접어들겠지만 근원PCE 물가는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서머스 전 재무장관, 경기침체 없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실업률은 6%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엘 에리안, 휘발유 가격 하락 등으로 헤드라인 물가(CPI)가 안정되더라도 근원물가는 연말 연준 목표인 2%를 상회하는 4.5~5.5%에 머물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연준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하지만 현재 선제적 가이드언스가 무의미해졌다고 비판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뉴욕 연은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비 하락. 유가 하락 등이 원인

- 1년 및 3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6.8%→6.2%, 3.6%→3.2%).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이 이번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연준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미국 7월 주택구매심리지수, '11년 이후 최저. 높은 모기지 금리 수준 등이 원인

- 해당 지수는 62.8로 전월(64.8)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Fannie Mae의 Doug Duncan는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주요 배경은 모기지 금리이며, 이에 판매자들의 시장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었다고 지적

■ 미국 하원의원, 달러화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촉구

- 맥신 워터스 의원은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역할을 유지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통화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 달러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다음달 관련 법안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

■ 독일 재무부, 141억유로 규모의 납세자 구제안을 발표할 예정

- Spiegel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다음주 '23년과 '24년 각각 101억유로, 40억유로 규모의 납세자 구제안을 발표할 계획. 해당 부양책에는 비과세 규모와 아동수당 증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

-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억제법이 시행될 경우 '23년 S&P 500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당순이익 0.5%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첨언

■ IFO, 중국과 무역분쟁은 독일에게 브렉시트 보다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

-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 지역의 피해규모는 브렉시트의 6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 산업별 피해 규모는 자동차 부문 8.47%, 운송장비는 5.14%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일본 6월 경상수지, 예상치 상회. 해외 투자 수익 확대 등이 배경

- 경상수지 적자는 1324억엔을 기록해 예상치(-7038억엔)대비 높은 수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구조 변화로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직접투자 수익이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무역 적자를 상쇄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고용동향지수: 117.63, 6월(118.70), 예상치(-)
- 일본 7월 은행대출(전년동월비): 1.8%, 6월(1.2%), 예상치(1.4%)

■ 주요 경제 이벤트(8/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및 2/4분기 단위노동비용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식시장 회복, 과거와 같은 금리하락이 아닌 생산성 제고가 중요 - WSI

(RIP Big Bull Market (1982-2022))

- 다우존스지수는 '82년 8월 이후 연 9.6% 성장하며 '22년 1월 고점을 기록. 이러한 강세장은 연방기금금리 인하, 낮은 이자비용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레이건 대통령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es) 인하 등이 일조
- 최근 기업실적은 투입비용(원자재, 인건비, 규제에 따른 간접비 등) 증가로 둔화. 향후 주가상승은 이전과 같은 금리하락이 아닌 생산성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성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측. 이를 위해서는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로 공급성장 유도가 중요

■ 미국의 소득 양극화, 고물가와 고용 감소로 심화될 가능성 - The New York Times

(In an Unequal Economy, the Poor Face Inflation Now and Job Loss Later)

-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은 주식 등의 상승으로 자산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고용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어려움이 커져 소득 계층별로 대조적인 모습. 이는 연준의 과제이며, 경제에도 문제
- 금리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외식이나 여행 등의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 주택 부문에서도 예비 구매자들의 매입여력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극화가 심화

■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과도한 규제보다 충분한 담보확보 규정이 요구 - Financial Times

(In defence of stablecoins)

■ 7월 해외투자자의 일본국채매입 증가, 국채수익률 통제 지속 전망 등에 기인 - 블룸버그

(Foreign Buyers Return to Japan Bond Market With Record Purchases)

■ 미국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전환, 아직은 시기상조 - Financial Times

(Waiting for Pivo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